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일명 ‘갑질’을 하는 비매너 고객들 때문에 상처받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배려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차안박피부과는 고객들의 부당한 언행으로 의료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을 겪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서로 강요하기 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믿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

친절한 차안박씨, 미소짓다

매너소비자 시대라지만 환불 등에 목적으로 둔 일부 블랙컨슈머의 등장이 두렵기만 합니다. 직원의 언행이나 행동이 빌미가 되어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단되는 현실.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면서 차안박 피부과의 의료서비스 전문가임을 기억해 주세요.

”



차안박피부과 워커벨 캠페인, 함께 동참해주세요.

고객과 직원간의 균형 워커벨!!!

당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매너존(MANNER ZONE)** 이 됩니다.

“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친절하
차안박을 만듭니다.”

2019년 7월 차안박피부과네트워크
24개 지점에서 워커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WORKER-CUSTOMER-BALANCE 워커벨!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인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안박피부과는

CNP 차안박피부과

고객과 직원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변화
즉, 고객과 직원의 상호 존중 시대를 이야기합니다.